

◆ 8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온라인 : 8월 20일(목) 09:00부터 보도

보도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26. 8. 20.(목)

<http://www.kcue.or.kr>

문의 ☎: 02-6919-3814 대학혁신지원실장: 서동석 기획혁신팀장: 지준오 담당: 김 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 대학 총장 설문(II)」 조사 결과 발표

대학 AX 전환, 필요성 인식에서 실질적 대응으로 : 구조적 자원 확충 및 대학 간 협력 기반 마련 시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2026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맞아 실시한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II): AX 시대의 고등교육」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설문조사는 2026년 6월 2일(화)부터 7월 10일(금)까지 192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144개교(응답률 75.0%) 총장들이 응답했다.

* 총 197개 회원교 중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5개 대학은 문항 특성상 조사대상에 미포함(국군간호/공군/육군/해군사관학교, 경찰대학)

□ 대학 총장 설문(II)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설문 결과]

▶ 대학 총장들의 주요 관심 영역

-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 영역 1위는 ‘재정지원사업(정부, 지자체 등)’(79.9%, 115개교), 2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60.4%, 87개교)으로 나타남.
- ‘발전기금 유치’에 대한 관심도가 전년 대비 5.6%p 상승(10위→8위)하며, **재원 확보** 수단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남.

▶ AX 전환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자원

- 향후 3년 내 AX 전환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추진 중’인 대학은 59개교 (41.0%)인 반면, ‘필요성은 인식하나 재원 부족 또는 검토 중으로 아직 계획 수립·추진에 이르지 못한 대학’이 80개교(55.5%)로 더 많았음. * 현 수준 대응 3개교 AX 전환계획 없음 2개교
- AX 환경 구축 6개 분야 모두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3.7% 이상이었으며, ‘AI 인프라·플랫폼 구축’(4.29점), ‘AI 기반 교육과정·콘텐츠 개발’ 및 ‘교수자 AI 역량 강화’(각 4.21점) 순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투자 필요 분야의 전액 자체 조달이 가능한 대학은 없었고(0개교),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이상 필요한 대학이 89.4%(127개교)에 달함(N=142*).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국공립 65.6%, 소규모 63.6%로 높게 나타남.

* 144개 응답교 중 'AX 전환계획 없음' 2개교 제외 / 절반 이상 자체 조달 12개교, 판단 어려움 3개교

▶ 대학 간 협력과 데이터 기반 혁신

- AX 시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대학 간 공동 개발·공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2%(127개교)로 나타남.
- 효과적인 공동 개발 분야는 '교육 특화 AI 시스템'(230점), 'AI 기반 학습관리·학습데이터 플랫폼 및 표준 체계'(176점), '공동 컴퓨팅 인프라'(120점) 순으로 나타남.
- 우선 구축할 데이터 기반 혁신 영역은 '학습이력·성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맞춤형 학습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선'(289점)이 모든 집단에서 1순위로 나타남.

▶ AX 현장 대응과 인재양성

- 대학 현장의 “변화 체감”이 모든 항목에서 “대응 수준”을 웃돌았으며, 그 간극은 'AI 인프라 구축·운영 재정'(체감 2.76 vs 대응 1.62)과 'AI·첨단 분야 교원 확보 및 산업 현장 전문인력 활용'(2.66 vs 1.63)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인재양성 방향은 'AI를 전공에 접목하는 융합 인재'(233점)를 압도적 1순위로 지향하는 한편, 기초·순수학문 학과는 '학생 수요 감소로 유지 어려움'(36.8%, 53개교)이 가장 많아 융합 지향과 기초 기반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나타남.

▶ AX 전환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 실효성 있는 재원 확충 방안 1순위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정부 전입금 확대'(289점),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원 재배분'(177점), '고등교육세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정 재원 구조 마련'(171점) 순으로 나타남.
- 상위 3개 모두 정부의 구조적·법정 재원과 관련되어, 대학이 AX 재원을 일회성 사업비가 아닌 안정적 재원 구조로 확보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기정 회장은 “대학은 AX 전환의 필요성에 폭넓게 공감하나 자체 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정부 전입금 확대 등 안정적·구조적 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AI 기반 플랫폼 등을 공동 개발·공유할 수 있는 대학 간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II) 응답 현황 1부
 2.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II) 결과 1부(별도 붙임)
 3.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II) 설문지 1부(별도 붙임)

[붙임 1]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Ⅱ) 응답 현황

1. 조사목적: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대상의 설문을 통한 대학 현장 의견 수렴
2. 조사기간: 2026년 6월 2일(화) ~ 7월 10일(금)
3. 조사방법: 웹 설문조사
4. 조사대상 및 응답률: 회원대학 192개교* ⇒ 144개교 응답(75.0%)

* 총 197개 회원교 중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5개 대학은 문항 특성상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국군간호/공군/육군/해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2026 대학 총장 설문(Ⅱ) 응답 현황〉

구 분		회원 대학 현황*		응답 대학 특성	
		대학 수	구성비율(%)	응답대학 수	응답률(%)
전체		192	100.0	144	75.0
설립 유형	국·공립	41	22.2	32	78.0
	사립	151	77.8	112	74.2
지역	수도권	74	37.5	54	73.0
	광역시	38	19.4	28	73.7
	시·도 단위	80	43.1	62	77.5
규모**	대규모	52	25.7	37	71.2
	중규모	58	34.7	50	86.2
	소규모	82	39.6	57	69.5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5개교 제외

** 소규모 5,000명 미만, 중규모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대규모 10,000명 이상(학부재학생 수 기준)